

首都圈의 都市와 人口問題

(上)

都市人口 集中이 經濟成長 이룩
都市가 都力形成 되면 分散 不可能



서울 국제 사이언스클럽 創立 7주년
기념식에서 特講하는 經濟科學審議會
朱源常任委員

/// 首都圈 人口와 都市人口가
어떤 位置에 있나

우리나라 國土와 首都圈의 面積은 首都圈面積
이 대체로 12.6%이다.

面積은 變動이 없고 73년 現在 總人口에 29.
6%가 首都圈에 살고 있다. 過去 1960년엔 21
%였는데 10年 사이에 30%로 올라간 것이다.

首都圈의 人口는 全人口의 30%가 살고 있는
데(현재는 넘었음) 그 人口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를 알아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都市에 살고 있는 人口가 73년 현재 全體의
79.4%였다. 60年度에는 60.8%였는데 10年 사
이에 79.4%로 增加했다.

이러한 것을 도시를 다루는 사람들이 人口의

서울의 人口가 600萬을 돌파하자 首都圈
人口의 分散 政策이 擡頭된바 있다. 首都圈
으로 集中되는 人口密集 現狀이 多角度로
미치는 영향이 클것이다.

專門家들이 말하고 있는 人口의 都市化란
무엇이며 世界속의 韓國의 都市化는 어떤
程度인가. 또 人口密集의 短點과 長點은 무
엇인가. 9月 18日 서울 國際 사이언스클럽
創立 7周年 紀念式에서 行해진 朱源 先生의
特講을 발췌 紹介한다. — 편 집 부 —

都市化라고 한다.

全世界에서 79.4%로 都市化가 되고 있는 나
라가 얼마나 있느냐를 地域別로 볼 때 아마 韓國
이 世界 最高水準에 도달하고 있는 實情이다.

가장 都市化가 많이 推進되고 있는 나라는 브
라질인데, 都市化 人口는 83.2%, 2위는 英國
78.4%, 3위 프랑스로 70%, 4위 美國69.6%,
5위 日本으로 68.1%, 韓國이 51.1%(73년 현재
이다. (지금은 51.5%가 넘었다)

首都圈의 都市化人口는 이미 極限을 越고 있
다. 이것이 수도권 人口를 보는 Keypoint이다.

/// 首都圈面積 (12.6%) 가운
데 都市面積이 얼마나 되
는데 그런 人口(79.4%)가
살고 있는가?

首都圈面積(12.6%) 가운데 都市面積이 얼마
나 되는데 그런 人口(79.4%)가 살고 있느냐?

首都圈面積을 100으로 보았을 때 13.5가 首都

人口問題

圈의 都市面積이다.

우리나라全體의 13%가 都市面積인 것이다. 首都圈面積과 都市面積이 거의 같은面積인데 都市化人口는 51.1% 首都圈人口는 79.4%이다 이렇게 首都圈에는 人口의 都市化가 極度로 壓라가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세상에선 人口가 都市에 集中하는 것은 하나의 罪惡으로 알고 있는데 人口가 都市에 集中하는 것을 서울인구 얼마라고 말할뿐 서울의面積과는 比較하질 않는다. 이것은 잘못이다. 正確히 事態를 보지 못하는 까닭이다.

단일 行政區域을 부쩍 넓히면 都市人口 數는 늘었지만 그리 問題視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全世界를 누벼가지고 都市化와 人口의 都市化를 對比시켜보면 세계에서 가장 人口의 都市化가 높은 브라질의 경우 人口의 都市化가 83.6%인데 面積의 都市化는 全國土의 16.5%이다. 이것은 거의 韓國과 類似한 形態인데 韓國은 人口의 都市化가 51.1%이고 面積의 都市化가 13%이다.

先進國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 별	인구의 도화시	면적의 도시화
미 국	69.6%	38.9%
프랑스	70.0%	42.5%
영 국	78.4%	41.8%
일 본	68.1%	28.7%

여기서 國土가 넓은 미국·브라질과는 比較가 안되지만 國土가 좁은 일본과 한국은 面積의 都市化가 이루어지지 않는 反面에 人口의 都市化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3.5%의 수도권 면적에 인구는 79.4%가 살고있어 수도권의 人口問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都市에는 여러 종류의 都市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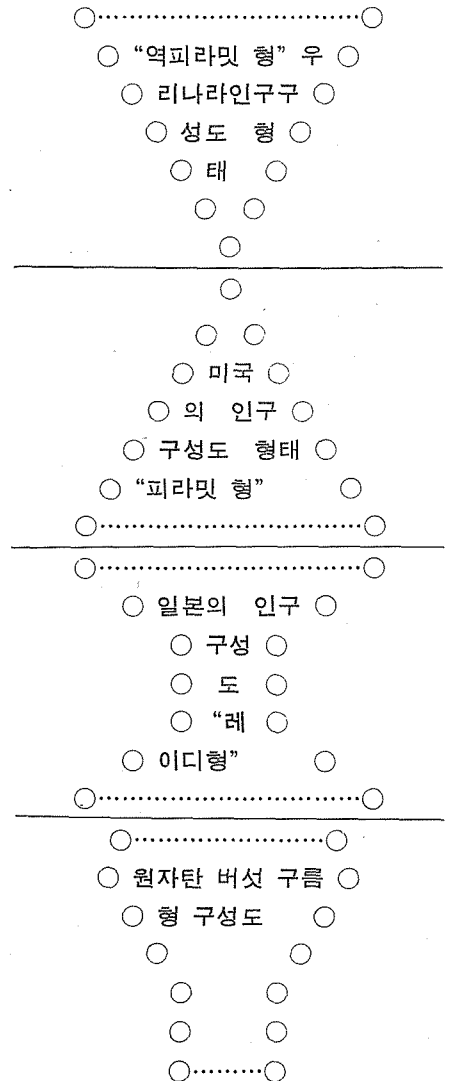
都市하면 읍사무소 소재지같은 小都市가 있는 가 하면 서울과 같은 大都市도 있다. 都市라는 말처럼 극히 曖昧하고 基準이 없는 말은 없다고 본다.

都市人口 몇 %는 所用이 없는 말이다. 그래서 都市를 여러가지로 分析해 보았다. 이자리에 선 大都市 中都市 小都市로 分類해 보겠다.

1960年度 우리 수도권의 都市人口를 100으로 봤을때 大都市에 살고 있는 人口가 77.4%, 中都市가 12.7%, 小都市가 9.9%였는데 1973年度엔 大都市人口가 82%, 中都市人口가 9.3%, 小都市人口가 8.7%였다.

이것을 全國과 對比해 보면 1941年度 大都市人口가 27.1%, 中都市人口가 27.9%, 小都市人口가 45%였는데 1972년엔 대도시가 60% 중도시가 23.1% 소도시가 16.9%이다.

이런 상태로 볼때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구성도는 역피라미트형태인데 이런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뿐이다.



이것을 도시인구를 다룰때 알아두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도시人口가 11.5%, 중도시人口가 16.7%, 소도시人口가 71.8%로 완전한 피라밋형이다. 저변이 넓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도시人口가 27.6%, 중도시人口가 26.1%, 소도시人口가 46.3%로 레더 몸매형이다.

수도권에 있어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構成은 마치 原子彈의 버섯 구름과 같은 形態인 소도시가 8.7% 중도시가 9.3% 대도시가 82%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탄의 폭발된 버섯구름 형태로서 원자탄과 같이 극히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허나 이런 형태의 도시는 세계에는 거의 없다.

이제까지 說明한 것은 都市人口의 形態의 여러 경우를 말한 것이다.

人口가 都市에 集中하는 것을 罪惡이나 敵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두 농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都市의 人口集中은 좋은 面도 있고 나쁜 面도 있다는 것을 알고 處理해야지 無條件 나쁘다는 것은 1970년대 선진국 가치선택기준의 변화를 그대로 삼키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다.

아무리 名藥이라도 먹는 方法이 좋아야지 그대로 먹을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도시의 인구집중이 되어서 좋은면은 어떤 것인가.

經濟는 成長은 도시의 인구집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1960~1971년까지 10년간을 두고 계산해보니 GNP(경제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도시인구집중이 이루어진 확률이 0.979이다. 거의 같은 水準으로 인구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經濟의 總規模가 확대되지 않는다.

공업발전과 도시인구집중과 사이는 0.967, 交易, 商易問題 사이엔 0.961로 모두 거의 同量으로 움직여 나갔다.

이것을 과거를 입증해 보기위해 1921~1961년

사이의 내 나름대로 立證할 수 있는 숫자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도시인구집중이 남쪽이 13.7배로 늘고 북쪽이 12.6배로 증가했을때 경제규모는 남북한을 합쳐 40年 사이에 18배로 증가했다(경제규모는 쌀, 면포, 노동인구 노임, 화폐 가치 변동을 갖고 비교 했음).

1921~1961년 사이에 전세계의 경우를 보면 같은 기간에 경제성장은 31.6배 도시인구집중은 19.8배로 증가했다.

여기서 도시인구의 약 50%정도 경제규모가 더 커졌다. 한국의 경우도 약 50%다 이렇게 볼 도시인구 집중과 경제발전 사이에는 큰 연관관계가 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도시의 인구집중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961~1971년 사이 남한과 전세계의 관계를 비교하면 남한의 경우 인구집중율이 74.4% 경제규모 1.4배 증가로 도시인구의 배로 경제규모가 발전했고 전세계의 경우 인구집중 61% 경제규모 1배 증가로 도시인구의 50% 정도 경제가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러가지 나쁜면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도시와 농촌에 사는 사람들 사이의 소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수차 말하는 것을보았다 농촌을 잘살게 해야지 도시를 잘살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을 수차 들었다. 과연 사실이 그러냐를 분석한 결과 1969년 소득면에서 도시를 100으로 했을때 농촌은 65.3 70년엔 67.1 71년엔 78.9로 농촌이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이는 방법에 따라 GNW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내가 선택한 책타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시를 100으로 봤을때 1963년 68.7 1969년 81.5 1971년 98.3으로 농촌과 도시의 GNW 지수는 거의 같다.

이것은 한가지 공통되는 책타인 가계비중 문화비를 얼마 쓰느냐에 달린 것이다. 1965년 도시가 16.9일때 농촌은 27.3(이중엔 관혼상제비 25.4가 포함) 71년엔 도시가 25.4 농촌이 32.8(이중 관혼상제비 7.4 포함) 이렇게 볼때 문화비의 지출은 도시나 농촌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다음 호에 계속—